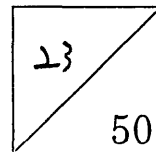


<유의사항>

- 이 자료집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의를 위한 서울여성세미나('91.11.25~29 : 제2차 세미나)와 평양여성세미나('92.9.1~6 : 제3차 세미나)와 관련하여 판문점에서 두차례 진행된 남북여성대표간 실무접촉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 내용중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 직접적인 인용이나 공표 및 복제·복사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평양 여성세미나」관련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 자료집

1994. 11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I. 서울여성세미나 관련 판문점 실무접촉

- 1. 성립경과7
- 2.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27
 - 가. 일반사항27
 - 나. 회의록28
 - 다. 남측 대표단 기자회견43

II. 평양여성세미나 관련 판문점 실무접촉

- 1. 성립경과51
- 2.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67
 - 가. 일반사항67
 - 나. 회의록68
 - 다. 남측 대표단 기자회견99

※ 참고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제1~4차) 개요

I. 서울여성세미나 관련 판문점 실무접촉

1. 성립경과

일본부인회의(의장:시미즈 스미코) 등 4개 일본여성단체가 주최한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동경:91.5.31~6.2)에 참석한 남북여성대표들은 앞으로의 남북 여성세미나 정례개최에 구두로 합의한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미나 준비를 해 왔음.

○ '91. 7. 10 이우정 등, 세미나 초청장 발송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승인 신청(통일원)

○ '91. 8. 27 통일원, 북한주민 접촉승인

※ 범여성계 참여와 정치성 배제 조건부승인

○ '91. 8. 29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일본부인회의 경유 여연구 외 4명에게 초청장 발송

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여연구, 남북여성대표
예비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1. 10.28(월) 11:06 ~ 11:23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류금성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이며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이며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
무위원인 여연구 동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들
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1년 10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우정 귀하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효재 귀하

나는 일본 참의원 의원이며 일본 부인회 회장이며 조선여성과 연대하
는 일본부인연락회 사무국장 『시미즈 스미꼬』선생을 통하여 서울에서 진
행하려고 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초

청장을 감사히 받고 이미 그를 통하여 토론회 초청을 수락하는 회답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회답편지에서는 제2차 토론회 조직과 관련한 실무문제들과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31일(목) 오전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남여성 대표들이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제의를 수락하고 예비접촉에 대표들을 파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 접촉에 우리측에서 3명의 대표들을 파견한다는 것과 이 접촉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안전담보와 래왕절차는 중전의 일반 관례대로 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 연구

1991년 10월 28일

나. 우리측,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명의 대북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1. 10. 29(화) 15:01 ~ 15:07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김현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귀측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30일 (수)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바랍니다.

1991년 10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다. 서울세미나 우리측 실행위원회, 북측 초청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려연구 선생님 귀하

일본부인회 의장 시미즈 스미꼬선생을 통해 보내신 1991년 10월 19일자 답신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2차 세미나 초청에 려선생님과 북의 여성들이 참여하시겠다는 회답을 받은 우리 실행

위원회는 참으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함께 약속하고 계획한 세미나입니다만 공식으로 이렇게 회답을 받고보니 우리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짧은 준비기간을 앞두고 시작되는 여러가지 절차와 진행을 추진하는데 마음과 발걸음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번 려선생님께서 제안하신 10월 31일자 예비접촉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저희 정부측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정부측에서는 관례상 민간인 차원의 예비접촉은 불가능하며 정부의 연락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 관련 판문점 통과절차, 서울체류일정, 세미나 실무문제 협의를 위하여 판문점 연락관 3명이 91년 10월 31일 (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관한 이곳의 일정과 진행계획을 서신으로 우선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목과 형식은 동경에서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주제는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며

서울세미나의 부제로서 : 『문화와 여성』이 됩니다.

이러한 부제아래 남측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에 대한 발제가 있으며 북측에서는 『통일과 여성』, 일본측에서는 『평화와 여성』에 관한 발제를 맡게 됩니다. 각측의 발제는 40분정도이며 각각의 발제에 관한 두 사람의 논찬이 있습니다. 논찬은 15분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과의 종합토의가 있겠습니다.

귀측에서는 『통일과 여성』에 관한 발제를 담당하실 분과 남측 발제와 일본측 발제에 관한 논찬에 참여하실 분 각 1명씩 2명의 명단도 함께 알

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함께 보내드리는 서울세미나
일일진행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경에서 이미 부탁드린바와 같이 이번 북측의 공식대표단에 기독교계
여성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세미나 일정은 11월 18일에
서 23일까지로 확정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 준비와 정부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자료로써

— 이번 세미나 참가자명단과 인적사항(이름, 태어난 곳, 현주소, 직
위, 직업, 경력), 그리고 천연색 사진(각 3장)을 가능한한 빨리 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발제자 1명과 논찬2명의 명단을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1. 주 제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2. 부 제 : 『문화와 여성』
3. 장 소 : 서울 평창동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4. 기 간 : 11월 18일 ~ 11월 23일
5. 참가규모 : 100여명 내외
6. 경 비 : 북측참가자들의 이번 세미나 참가를 위한 모든 숙박비,
식비, 교통비등 여행경비는 초청자가 부담

분단 46년만에 처음 만나는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앞당기
며 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귀측 참가인 전원이 남한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또한 우리 정부에서 귀측의 신
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991년 10월 28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이 우 정

이 효 재

윤 정 옥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일일진행계획(안) 동봉

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여연구 명의 대남편
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1. 10. 31(목) 10:04 ~ 10:08
- 통화자 : (남) 김기웅 (북) 안창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여연구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서울토론회 남측 실행위원회
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1일 (금) 오후3시 2명
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1년 10월 31일

마.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1. 10. 31(목) 15:02~15:06

○ 통화자 : (남) 김기웅 (북) 한수동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귀측 최고인민회의 여연구 부의장이 우리측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1일 (금) 오후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1991년 10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여연구, 우리측 실행
위원회 앞 회답편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 남
측실행위원회 앞

나는 귀측의 10월 30일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실행위원회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
차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북과 남의 여성들과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서울에서 진
행되게 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우리 여성들의 마음과 뜻을 합치
며 나아가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믿습
니다.

서울토론회는 또한 북남여성들의 강렬한 통일 지향과 의지를 확인함으
로써 90년대 통일을 위한 북남여성들과 온 겨레의 통일대행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
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부인회의 의장 시미즈
스미꼬선생을 통하여 토론회조직과 관련한 편지를 받고 그 준비사업을 착
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미즈 스미꼬선생이 보내온 서울토론회조직과 관련한 몇가지 실
무문제에 대하여 귀측과 협의하여 일부 조절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서
10월 31일에 북남여성대표들의 예비접촉을 판문점에서 가질것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오늘날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고위급회담도 진행되는 조건에서 북남녀성대표들이 중요한 회의를 위한 예비접촉을 직접 가지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측 당국이 《관례상 민간차원의 접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북남녀성대표들의 예비접촉을 가로막아나선것은 순전히 민간급 대화에 간섭하고 거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남녀성들의 판문점예비접촉이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제2차 서울토론회조직과 관련한 일부 실무적문제들에 대해 우리측 의견을 서면으로 알려드리는바입니다.

우선 서울토론회 개최시일문제인데 우리로서는 제2차 서울토론회를 준비상관계를 고려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알리는바입니다.

토론회가 며칠 남지 않은 이제와서 우리가 그 시일을 변경시키고자 하면 귀측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줄 알면서도 제기하니 널리 이해하시고 토론회날자를 우리의 희망대로 조절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표단구성문제인데 우리로서는 녀성대표단이 처음으로 서울에 나가는것만큼 대표 6 ~ 7명외에 3 ~ 4명의 수원과 최소한 5 ~ 6명 정도의 기자들을 대동하였으면 합니다.

그밖에 토론회에 재일조선동포녀성들을 참가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계각층 재일본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총련녀성대표 2명, 《민단》녀성대표 2명, 《한통련》녀성대표 1명정도 참가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울토론회의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제기한 의견에 동감입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귀측에서도 우리와 같이 주제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관과 일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번 토론회의 성격에 맞게 경주참관과 공덕귀사택방문은 그만두고 그 대신 여성들이 많은 1개의 대학과 공장을 참관하여 강연도 하고 좌담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문제는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서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의 판문점통과절차 등 실무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대표단이 서울에 나가기 1주일전에 판문점에서 연락대표접촉을 가지고 협의하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진행과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울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북과 남의 모든 여성들과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귀측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러 연 구

1991년 11월 1일

평 양

사. 우리측 실행위원회, 실무문제 협의 예비접촉 제의 및 우리
측 참가자 명단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1.11.4(월) 10:02 ~ 10:12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이철영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선생님 귀하

여선생님의 11월 1일자 답신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제의하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저희들 위원인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3명이 11월 6일 오후 2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판문점 연락관도 함께 회의실에 나갈 예정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바랍니다.

1991년 11월 4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이 우 정

이 효 재

윤 정 옥

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예비접촉 일자 수정제의 및 북측 참가자 명단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1. 11. 5(화) 11:40 ~ 12:05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안창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며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여연구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회 이우정·이효재·윤정옥 선생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1년 11월 5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남측 실행위원회 이우정·이효재·윤정옥 귀하

11월 4일부 귀측의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준비사업에 매우 분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10월 31일에 북남여성대표들이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 것은 서울토론회의 개최시기문제, 대표단 구성과 일정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귀측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당국의 반대로 예비접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부득이 서울토론회 조직과 관련한 우리의 의견들을 편지에 담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북과 남의 여성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 민족의 중대사를 놓고 만나는 첫 회합으로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론회가 북과 남의 모든 여성들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진행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토론회 조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들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며 북남여성 대표들의 예비접촉이 열리면 서로 의사가 소통되어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접촉 날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남조선에서 대화와 통일에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연습이 끝난 후인 11월 9일(토) 오전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예비접촉에는 우리측에서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김선옥

③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정명순

대표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귀측에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 연 구

1991년 11월 5일

자. 우리측 실행위원회, 예비접촉 일자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1. 11. 7(목) 15:17 ~ 15:26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안창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선생님 귀하

귀하의 11월 5일자 전화통지문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준비를 위한 제반 실무문제가 잘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일정상 다소 촉박합니다만, 귀측이 요청한 대로 오는 11월 9일 (토)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접촉을 가지는데 동의합니다.

우리측에서는 이우정·이효재·윤정옥 3인이 참석할 것이며,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연락관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럼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1991년 11월 7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이우정·이효재·윤정옥

차. 우리측 실행위원회, 북측 참가자 명단접수 및 신변안전보
장각서전달관련 연락관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1. 11.18(월) 14:00 ~ 14:10
- 통화자 : (남) 석명학 (북) 한수동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1년 11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선생님 귀하

오는 11월 2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측지역을 방문하는 귀측 대표단의 명단을 접수하고, 우리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하고, 판문점 통과 절차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21일 (목) 오전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3명의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연락관이 나갈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바랍니다.

1991년 11월 18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이우정·이효재·윤정옥

카.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연락관 접촉동의 및
부친성묘 협조요청 전통문

- 일 시 : 1991. 11. 19(화) 15:30 ~ 15:45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김창남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여연구 의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귀측 실행위원회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1년 11월 19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실행위원회 이우정·이효재·윤정옥 선생 귀하

선생들이 보낸 11월 18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나는 서울에 나가는 우리 여성대표단의 명단을 넘겨주고, 대표단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넘겨 받으며,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11월 21일 (목)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연락대표 3명을 내보낸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나는 연락대표접촉 기회에 귀측이 우리 대표단을 위해 준비한 서울체류일정을 넘겨줄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당일(25일) 오후에 내가 잠시 시간을 두어 나의 아버님의 묘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선생들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2차 토론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매우 분망하게 지내실 선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 연 구

1991년 11월 19일

2.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

가. 일반사항

- 일 시 : 1991. 11. 9(토) 10:00~10:55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쌍방 대표단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center;">이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p> <p style="text-align: center;">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p> <p style="text-align: center;">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여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겸 「여맹」상무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김선옥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정명순 (「조평통」 서기국 참사)</p>

나. 회의록

<쌍방대표 입장 및 인사교환>

북 : 빨리 끝내야 하니까, 이 계획을 하나하나 눌러 갑시다. 일 없죠?

남 :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죠?

북 : 예. 그래서 대표 15명 합의되고, 날짜 25일부터 30일까지 합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관일정을 하겠는데, 차례 차례 내려가면서 할까요? 25일이라고 해야죠?

남 : 25일에서 30일.

북 : 저기 경주 전학있지 않습니까? 참관은 물론 짜 주신대로 해야 되겠는데, 저만은 어떻게...

남 : 건강이 안좋으셔서.

북 :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남 : 그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때 일본서는 우리가 여성과 문화, 전통문화를 얘기했었고 경주가 천년전 우리 고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박물관도 있고 천년전에 모든 유습이 있잖아요?

북 : 예. 있지요.

남 :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이해하는데는 거기가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벅차요. 비행기가 포항으로 가서 포항에서 또 택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이라서 벅찬데, 그냥 버스로 직접 가면 네시간 반에서 다섯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벅찬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또 일본 사람들이 경주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넣었던 것인데, 선

생님 편지받고 정 그러시다면 우리야 사실 서울 장안의 것도 좋고 근교 수원의 민속촌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원하시는데로 우리가 그때 약속한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오시는 기회에 이렇게 보시고 느끼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북 : 우리도 보고 싶지만 여선생님 치료가 사실 힘들어서요.

남 : 나중에 보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되지.

북 : 나 내놓고 가라 그랬지.

북 : 단장없이 우리끼리 뭐하러 가겠어요.

북 : 그래도 가자 그랬는데 안가겠데.

남 : 우리는 짐이 가벼워졌어요.

북 : 그 다음에 공덕귀 선생님 댁 방문인데?

남 : 이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왜 이것을 우리가 넣었느냐 하면, 집행위 원회를 여러번 모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와 여성인데 이 댁이 100년이 넘었고 유일하게 사랑채, 안채 해가지고 한국 전통가옥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또 천정이 못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100년전에 무슨 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맞추어서 못이 하나도 없어요. 석가래 엮는데 완자 무늬가 한국 전통가옥 그대로 100년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여성이니까... 그리고 그 집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한국 전통가옥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문화와 여성이니까 일본여성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미끼수상 집에 갔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신 김에 한국 전통가옥,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대로 보존된 집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

을 드렸더니 굉장히 환영을 하세요.

특별히 여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깐 언제든지 아무 때라도 오라고, 아주 언제든지 좋다고 기꺼히 허락을 하시길래 넣은 것인데, 이것도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자 하면 하고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북 : 아니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것 만큼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서로 좋고 이해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는 열 명, 스무 명 씩 만나는 것이 더 좋다.

남 : 선생님 한분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지도자도 같이 초청하려고 그랬죠. 정원이 넓으니까 다른 여성단체 지도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고, 정원이 아주 넓어요.

북 : 서울에 있을 때 저도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같이 가는 동행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보자 시간이 아깝다 5박 6일이 뭐냐 하는데, 그래서...

남 : 우리는 주제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교섭을 해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좋기 보다는 오시는 분들이 좋으셔야지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북 : 사실 개별 댁 방문하는 것은 우리 욕심같아서는 임수경 어머니도 보고 싶고 문익환 선생님 부인도 만나고 싶고 하지만 다 그렇지요.

북 :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죠.

남 : 예. 그러면 그것도 바꾸죠.

북 : 길가다가도 만나보고 아무 장소든 구애됨이 없이, 그렇죠?

북 : 선생님 거기 모교도 있지 않습니까?

북 : 그럼 있지.

북 : 이화여대?

북 : 그럼.

남 : 공 선생님 댁은 교섭을 해서 이미 허락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취지를 설명하고 좋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바꾸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대를 교섭해야죠.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여 선생님 오시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요.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북 : 모교에 가보고 싶었어요. 기념품이라도 받고 싶고...

남 : 나도 이대에서 33년을 가르쳤어요.

북 : 이화여대에서 은수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니까 개교기념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고맙다고 해야 되니까 가야지.

남 : 우리가 교섭을 해봤다가 안가면 실레니까. 사실 공 선생님은 우리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역사적인 모임이고 문화와 여성이니까 이 댁에 와서 해야겠습니다 해서 사실 어려운 것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취지를 얘기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화여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생각에 가능해요. 오신다는데 왜 여대에서 싫다고 그러겠어요.

북 : 하여튼 수고해 주셔야 되겠어. 처음부터 친절히 해주셨는데 참 미안해요.

남 : 어쨌든 오시게 하고 싶어서. 오셔야 우리도 평양에 가보죠.

남 :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시설도 생각을 했어요.

남 : 서울에서 가까운 공장.

북 : 예.

남 : 우리는 사실 우리의 짐은 가벼워져요. 5시간을 버스로 갔다가 거기서 자고 경주시찰하고 5시간 걸려서 올 생각을 하니깐, 우리도 비행기 타고 갈아서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한 두명도 아니고 30명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측은 여럿이 아닙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짜면서도 부담스러운 생각으로 짰지만, 여러분이 그러시면 저희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북 : 말하자면 거기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푸는 식으로 되었구만요.

북 : 그래도 미안하죠.

북 : 우리측도 미안합니다.

남 : 주최측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게 원래는 원칙이죠. 일본에서도 주최측의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 갔죠. 주최측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저희는 원칙 그런 것 보다 어쨌든 오시게 하고 또 우리도 가고 싶고.

북 : 그렇지.

북 : 여성들끼리 심정을 토론해, 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소원인데.

남 : 그런데 사실 공 선생님, 경주 이것은 참 마음 먹고 짠 것입니다. 마음 먹고 짠 것인데 여러분이 그러시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북 : 그래도 괜찮아요?

남 : 예. 괜찮아요.

북 :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왕래절차죠. 신변안전담보하고 명단 넘기는 것은 25일날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3일전에 연락관을 통해서 서로 넘겨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남 : 한 5일전에.

북 : 3일전에.

남 : 아니 우리가 5일전에 오시는 명단과 이력 이런 것을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필요하지만, 여기 판문점 건너오는 절차는 저희는 몰라요. 그것은 연락관이 알아서 해주실테니까. 5일전에 명단, 가능하면 일본서 할 때 처럼 사진도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소개하는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오는 편에.

북 : 보도는 각자하는 것이고.

남 : 예.

북 : 오늘 합의된 것은 보도는 각자하고.

남 : 괜찮죠. 우리는 정치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수 민간인들이 하니까.

북 : 일정진행표에 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어요.

여기로 봅시다. 이거 해는 걸로 보셔야지요?

여기, 국회 방문이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이것이 장소가 어디고 환영연회하는데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참가범위는...

남 : 환영연회는 호텔에서 하고, 명의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참가범위는 우리가 많이 초청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많이 좀 초청할까 그래요. 여러분 만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남한의

여성들에게 의식화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200명을 초청하려고 해요. 그러나 호텔에서 하고 물론 주최는 우리고요.

북 : 한 200명정도요?

남 :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북 :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일에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에 대해서 남북이 논평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남 :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하면 먼저 발표하고, 일본하고 북측에서 거기에 대한 논찬을 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서 질문도 받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그런 것인데 반드시 종합토의라고 안해도 돼요. 그냥 질의·응답 그러면 돼요.

북 : 질의·응답이 없을 때는 그냥 종결 짓고?

남 : 없으면 그냥 끝나고.

북 : 논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대측의 토론에 대해서 주제발표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찬조출연한다는 의미인지? 보조토론하는 식으로...

남 : 우리가 가부장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한의 가부장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북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도 좋으시고, 이북에는 아직도 그런 점이 북쪽에도 좀 남았다. 그러셔도 좋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일에 들어가서 국회방문에 이어서 국회의원

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에서는 뭘 좀...

남 :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여당, 야당 여성국회의원과 앉아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어려움에 대해서 의논했잖아요, 정보교환도 하고 그랬잖아요.

북 : 장소는...

남 : 국회에 가면 귀빈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북 : 참가인원은 각자 다 참가합니까?

남 : 북측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 30명은 가시는 것이죠. 우리쪽에서도 물론 같이 가고.

북 : 그것 끝난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남 : 국회 안에 식당이 있으니깐 거기서 하시고 호텔로 오셔서 주무시면 되는거죠.

북 : 20일에 여성단체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있죠? 산업시찰은 어디를?

남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원래 공덕귀 여사택 방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회담 장소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2시간하고 4시까지 와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장방문이라든지 혹은 여자대학을 가면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져야죠.

남 :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경주를 안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여사택 방문을 안하시겠다면 모르지만 일본 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시겠다면...

남 : 갈라서? 갈라볼까? 그러면 일본은 공선생님 택으로 가고.

남 : 그렇지요. 이 시간을 지도자 간담회를 공 여사택이 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여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분이 이왕이면 좀 교회 여

성단체도 부르고 많이 초청하면 어떠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를 거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 : 아니, 그런데 거기보다 다른데를 가지겠다면...

북 :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하지요.

남 : 너무나, 너무나 조그만해요.

남 : 그러니까 이날 가까운 여대, 이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와서 여성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자.

북 : 공덕귀 여사 대신에...

남 : 대신에 그러면 그것은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거리, 우리가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어딜 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길이 막혀요.

그런데 이대는 우리가 하자는데서 가까와요. 그러면 공선생님 덕이나 거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셨다가 오셔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공장가신다든지 하면 그날은 어렵고, 이날 이대를 가지자 그러시면 그것은 되지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북 : 예.

남 : 그러면 이날 이대를 가고, 원하시는데가 이대니까 이대를 갔다 와서 4시에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간담회하고, 이의 있습니까?

북 : 그것은 어디서?

남 : 간담회는 호텔에 와가지고 해야지? 와 가지고 해야지요.

북 : 남측의 여성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다 참석하는 것입니까?

남 : 여성단체협의회고 YWCA이고 그 밖의 단체들을 다 오시라고 그
래야죠.

북 :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것은 됐죠?

남 : 21일날 경주관광 없어지는거죠?

북 : 21일날 경북궁 박물관, 그 다음에 산업시설을 보죠?

남 : 예.

북 : 박물관은 어느 박물관인지?

남 : 국립박물관에 신라 천년이 다 있고 요새 새로 발굴된 가야문화, 그
러니까 신라보다도 훨씬 앞에, 그 가야문화가 일본문화보다 훨씬 앞
섰더군요. 요새 발굴된 그게 있어요.

북 : 일본문화에 조선문화가 들어갔으니까.

남 : 훨씬 앞섰어요. 아주 가서 보고 놀랐어요. 서양보다도 가야문화가
앞섰더군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거기를 안내하고요, 우리 호텔에
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야문화, 신라문화 이런거...
우리도 평양에 가면 그런 우리 문화를 보고 싶거든요.

북 : 역사박물관이랑 민속박물관이랑 굉장히 많지요.

남 : 그러니까 원하시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지요. 우
리는 다 우리측 손님 생각하고 짚거니까.

남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도 생각해 봤어요.

북 : 그 다음에 산업시설은 어디를 방문시키겠는지?

남 : 산업시설? 수원에...

남 : 수원에 가면 민속촌이라고 있어요. 초가집, 동동주 등 아주 민중들
이 살던 것이 그대로 재현을 한 야외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거기에 가시면 오전에 박물관을 보고 오후에 수원가시면 공장을 들리셔서 보시고 민속촌보시고 그러면 그이상은 못
해요.

남 : 수원에 삼성전자 산업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일
해요.

남 : 노동자가 거의가 다 여자들이에요.

북 : 하나 놓쳤는데, 21일날 6시에 하는 여성문화의 밤은 어떻게 합니
까?

남 : 우리가 그냥 일본서 하던대로의 축제로, 노래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
나서 반가우니까, 그것입니다.

북 : 장소는?

남 : 호텔입니다.

북 : 참가인원은 대표끼리만? 여자들끼리만?

남 : 그럼.

북 : 형식은 그저 우리도 노래 부르고 막합니까?

남 : 원하시면.

남 : 우리 일본에서 그래 가지고 감격들을 하고 울고 얼싸안고.

북 : 노래할 줄 모르는데.

남 : 지금부터 연습하셔야죠.

남 : 오사카에서도 그랬고 고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하루 저녁은 우리가
마음 폭 놓고 서로 노래하고 춤추고.

북 : 남측이고 북측이고 그때는 없고 한번 마음놓고 얼싸안아 보고.

남 : 조총련 사람들은 막 울더라구요. 벽을 처음 넘어봤다는 거죠.

북 : 분단 46년만에 처음 만났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뒤늦었지만 가급적 앞으로 앞당겨서 좀 빨리 해 보세요.

북 :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가는구만.

남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 : 평가모임은 총화죠? 그때 하던 식으로 하면 되죠?

남 : 예. 그 때 하면서 다음 평양에서 모이면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난 지금 평양 생각밖에 없어요. 어려서도 못 가봤어요. 평양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죽기전에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북 : 내년엔 꽃필 때 오세요.

남 : 글썄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평가회의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평양서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주제는 뭘로 할 것인가, 몇 명이 가야 하는 것인가 등을 대강 합의를 봐야 또 다음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일본, 북측, 남측이 함께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일본측, 북측, 남측이 다음 모임을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 : 한가지 좀 더 보충할 것이 기자문제인데, 물론 거기 여성기자도 있고 남성기자도 있는데 하나쯤 더 끼어도 일없지. 통신, 나르는 것이 있고 밀고 당기는 것이 있고...

북 : 보통 열 몇킬로가 넘지.

남 : 그쪽에서 오시는데?

북 : 그걸 여성이 메고.

남 : 상관없어요.

북 : 여성기자들이 꺾꺾한 기자들이 많지만 이젠 또 남북간에 하지 않습니다.

북 : 이남 기자들이 막 들면 우리 여자들 찍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힘있는 남성들도 찍을텐데.

남 : 우리 이남에도 여자기자 많아요. 오늘 여기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남 : 여성들 측에서 조금, 위축은 되실 것입니다.

북 : 꽃밭속에 들어갔으면 행복하죠.

남 : 그러니까 남성기자...

북 : 남성기자도 조금, 우리 냅자.

남 :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안되겠지만 기자는 괜찮아요.

북 : 한 6명쯤 들어가서 기운센 사람들이 메고 다니면서 해주고 여자들을 뒤에서 받쳐주어야지. 내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안되겠어요. 너무 밀고 말이야.

남 : 우리도 남측에서 오늘 남성기자들이 모두 오셨는데, 그것은 좋도록 하세요. 대표는 안되요. 여성과 문화인데 남자가 와서 어떻게...

북 : 다 했나?

북 : 다 됐네요. 아니 어찌면, 어찌면 이렇게 잘 되었어요.

남 : 정말 기가 막혀, 일사천리예요.

북 : 일사천리였어요.

북 : 이렇게 잘 되니까 사실 46년동안 처음 만난다는 것이 말이 안되요.

남 : 여자들이 하면 다 잘 되어요.

북 : 모범을 보입시다. 모범을 창조하고 이대로 끝까지 끌고 나간다.

북 : 앞으로 모든 안건의 회담은 여성회담처럼 해야지.

북 : 판문점에서 남성들이 많이 만났는데 서로 옥신각신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만나서 했어요.

남 : 우리는 이걸 짜면서도 항상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느걸 좋아
하실까 어느걸 좋아하실까 하면서 짤거예요.

북 : 고맙습니다.

남 : 그러니까 거기서 싫다고 그러면 또 받아 들여야죠.

북 : 오늘 아침 날씨가 좋더니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남 : 정말이야, 축복해 주었어.

북 : 다 됐죠?

남 : 예.

북 : 가만, 우리 이러면 안돼요. 우리 약속한 대로 옷을 곱게 내가 해드
려야 되겠는데, 일단 내가 하겠어요.

남 : 우리도 해놓을게요. 거기는 보라색이고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남 : 난 아무거나.

남 : 좀 밝은 색으로.

북 : 우리 다시 한번 재자구.

북 : 전번에 제가 치수가 있지만.

남 : 우리 저선생님거 재야 돼. 없어.

남 : 치수 가지고 오셨어요.

남 : 세 분 것은 이연화 선생님거랑 적은 것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아
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리고 우리가 없으니까 저선생님 것 하나 재 주세요, 우리가 없으니
까.

북 : 저는 체격이랑 잘 생겼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잘 맞을거예요.

남 : 이것도 찍으세요. 모두? (사진기자들에게)

남 : 치마를 길게 해 드릴까, 짧게 해 드릴까?

북 : 효재 선생이 먼저 잡니까?

남 : 예.

북 : 우리는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면 맞을 것입니다.

남 : 치마를 길게 하셔야지.

(양측 대표 옷 치수 잴)

남 : 고맙습니다.

북 : 선생님, 이제 준비하실려면 바쁘시겠는데 잘해 주세요. 우리 여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 : 안녕히 가세요.

북 :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몸 귀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남 : 서울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쌍방대표 인사교환후 퇴장>

다. 남측 대표단 기자회견

이우정 : 저희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여러분이 곁에서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기 자 : 아주 잘하시던데요. 여연구 부의장이 완전히 압도당하던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는 조선일보의 오태진입니다.

원래 저쪽에서 수정제의해 올때 사항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토론회 일정 가운데 통일에 관한 주제발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토의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정 : 우리쪽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을 남쪽에서도 「통일과 여성」으로 바꿔 주면 어떠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도 안 꺼내네요.

기 자 : 아예 안 꺼냈습니까?

이우정 : 얘기도 안 꺼내는 것을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미 원고 다 쓰고 해서 바꾸기도 어려워요.

기 자 : 그쪽에서 출자까지 준비해 온 걸 보아서는 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일본을 통해서 사전연락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우정 : 우리는 없죠. 초대장을 처음에 일본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냈죠. 그리고 그쪽에서 온다는 승락서가 일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왔고, 그다음서부터는 완전히 통일원에서 다 해주셨죠.

기 자 : 여연구 부의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죠?

이우정 : 입원했다 나왔다고 그러네요. 가면 또 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러네요.

기 자 : 김선옥 부부장은 오늘 처음 보는 분이예요?

이우정 : 예. 처음 보는 사람이예요.

기 자 : 내력은 전혀 모르시고요.

이우정 :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기 자 : 정명순씨는 어떻습니까?

이우정 : 동경에서 만났어요.

기 자 : 내력을 좀 들으셨습니까?

이우정 : 그이가 이북의 여성사라는 잡지의 논설위원이고 통일연구소 연구원이고 조국통일전선 서기국 이사든가, 참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서 회의를 해보니까 여선생님보다는 정명순씨가 이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일본 여성을 위해서 내는 호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입장, 북쪽 입장을 할 적에는 꼭 그이가 나오더라구요.

기 자 : 지난번에 도쿄에 왔다가 이번에 안 나온 분이?

이우정 : 이연화. 연꽃이라는 연자하고 꽃 화자.

기 자 : 이연화씨는 직함이 무엇이였어요?

이우정 :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지도위원 이효재, 그 분은 외국어대학 일어 전공이어서 통역으로 일본 담당인 것 같았어요.

기 자 : 이번에 5명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 올지는 아직

이우정 : 아까 물어보니까 이연화씨 끼어서 오겠다고 그러데요. 오늘 셋과 이연화, 다른 하나는 누가 올지 모르죠.

기 자 : 오늘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거죠?

이우정 : 예, 다 확정되었습니다.

기 자 : 거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우정 :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넘어오는 절차와 명단오는 것만 남았죠.

기 자 : 아까 국회방문하고 하는 것은 예정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우정 : 그것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기 자 : 이우정 최고위원께서 오늘 감회라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우정 : 사실 저는 그랬죠. 만나서 원래의 프로그램 짜는 의도를 설명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쪽에서 원래 올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안올려고 구실을 자꾸 만드는 것인지 그게 확실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도 했고 그랬는데 의외로 우리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날짜 합의볼 때 제가 감을 잡았어요. 날짜 합의볼 때 올 의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좋도록 합시다. 좋도록 합시다 그랬죠. 구실을 잡으려는 감이 오면 그 때는 우리도 뻔대 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어차피 못할 것이라면. 그런데 날짜 합의볼 적에 이거는 오려는 것이구나 하는 감이 오더라구요.

기 자 : 이번 세미나가 2차가 되는데, 세미나의 의의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우정 : 음악인이니 체육인이니 당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장이 마련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성단체연

합, 제가 전 회장이고 이호재 교수님이 현 회장이시고 또 여성 정신대 문제, 제일 아픈 문제를 다루시는 윤교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든 여성들이 분단의 비극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크게는 정부간에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국제회의에 가서 해가지고 일본여성들이 남북분단은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우리가 속죄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 자리에서 모색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문제는 한번에 어떻게 된다는 것 보다 우선 서로 우선 믿는다는 것, 신뢰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 적대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중에 통일하는데 기여한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두고요.

또 하나는 일본 여성들이 아주 보수적인 군국주의 사상에 아직도 물든 여성들이 있지만 양심적인 여성들은 자기네가 2차대전 때 지은 죄, 아시아에 지은 죄를 자기네가 철저히 속죄하고 속죄에 해당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이 평화롭게 같이 살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네들을 양심세력의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속죄하는 심정으로 같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해서 남과 북의 분단이 극복되는 것이 극동에서의 평화의 초석이고 극동의 평화가 아시아의 평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해서 내년 평양까

지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더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넓힐 생각이 있어요.

기 자 : 일단 내려오게 되면 평양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이우정 : 그건 정부에서 안 말려주시고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100% 초청한다고, 몇 명이든지 오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기 자 : 여연구 부의장이 서울에 연고자가 있다고 그러던가요?

이우정 : 사촌도 있고 다 있어요.

기 자 : 이전에 케냐에서 누구를 만났었죠? 기억하십니까?

이우정 : 그것은 모르겠어요. 3남매만 올라갔지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한테 귀에다 대고 그러던데 『나 가고 싶어요, 오세요』.

기 자 : 예전부터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까?

이우정 : 『예,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혈압이 높고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초조한가 봐요 와 보고 싶은 게. 그런데 그런것은 쓰지 마세요. 그런거쓰면 이북에서 안 보내면 곤란해요. (웃음)

윤정옥 : 그런데 여연구씨와 동창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예요. 이효재선생님도 그래요. 이효재 선생님도 그 분하고 동기동창이거든요.

기 자 : 세 분이 다 이화여전 문과?

윤정옥 : 그 때의 문과, 대학이 되기전에 1학년때.

기 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Ⅱ. 평양여성세미나 관련 판문점 실무접촉

1. 성립경과

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시 : 1992. 4. 3(금) 10:02~10:11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강덕순
- 내용 :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여연구 상무위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우정 부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효재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2년 4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의장 이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선생

나는 선생들에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 준비와 관련하여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4월 6일(월) 오전 11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선생들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1992년 4월 3일

나.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시 : 1992. 4. 4(토) 10:07~10:14
- 통화자 : (남) 석명학 (북) 강덕순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4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귀하

귀하의 4월 3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귀하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4월 6일(월) 오전 11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2년 4월 4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 우 정

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 관련 대남편지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리우정선생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리효재선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선생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준비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먼저 지난해 11월 우리 북측여성대표단의 서울체류기간 우리 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주고 진실히 돌보아주신 리우정, 리효재, 윤정옥 선생들을 비롯한 남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남조선의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서울에서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는 아세아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북과 남 그리고 일본여성들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뜻깊은 회합이었습니다.

제2차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쌓여온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우의를 두터이하며 여성들 뿐 아니라 북과 남의 온 겨레에게 통일열기를 북돋아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표단에 표시해준 남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남조선의 각계각층 여성들의 극진한 환대를 통하여 혈육의 뜨거운 정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리우정, 리효재, 윤정옥 선생

제2차 토론회이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북과 남사이에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그 리행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신심드높이 90년대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북과 남의 녀성들이 련대를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제2차 토론회에서 우리들이 합의한대로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한 몇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날자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대로 4월말경에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의제는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선례와 북남합의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 정세를 고려하여

첫째, 조국통일과 녀성들의 과업에 대하여

둘째, 아세아에서의 비핵평화운동과 녀성들의 과업에 대하여

셋째, 민족의 대단결과 녀성들의 역할에 대하여로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첫째의제에 대해서는 남측대표가, 둘째의제에 대해서는 일본측대표가, 셋째의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각각 기초보고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제별로 각기 2명씩 보충토론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토론회에 참가할 대표단구성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2차 토론회의 선례를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차 토론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판문점에서 북남녀성

대표들이 마주앉아 토론회일정을 비롯한 실무적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가 아세아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일본여성들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들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려연구

1992년 3월 27일

라.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서한 전달예고
전통문

○ 일시 : 1992. 4. 11(토) 10:03~10:08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김덕수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귀측 여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3일(월)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바랍니다.

1992년 4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마.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대리 이성호, 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2. 4. 11(토) 11:31~11:35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김덕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여연구 상무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이 보내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3일(월)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2년 4월 11일

바. 남북여성세미나 우리측 실행위원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 개최일자 연기요청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려연구 의장 귀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 준비를 위해 1992년 3월 27일에 보내신 귀하의 편지는 동년 4월 6일에 판문점의 연락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남동생께서 갑자기 별세하시어 애통하시는 마음을 짐작하며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에 관하여 남측 실행위원회가 모여 논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측에서 제안한 4월말경의 개최는 일본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불가불 9월초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토론회 주제들은 귀하와 일본 동경에서 의견교환한 것을 참고하셔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석인원수나 상세한 일정은 일본과 우리측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위의 제안들에 대한 회신을 주시면 일본측과 우리측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차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9월초에 다시 반갑게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1992년 4월 13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우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실무문제 협의제의 전통
문

○ 일 시 : 1992. 6. 3(수) 14:05~14:25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안창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여연구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와 관련한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우정 부회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이효재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2년 6월 3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우정 선생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효재 선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 선생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와 관련한 선생들의 4월 13일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측과 일본측이 토론회 날짜를 9월초로 연기하자고 제기해온 조건에서 일본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의견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의제를 귀측과 일본측이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전후보상문제』,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로 하자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회 준비와 관련하여 남은 일은 토론회 날짜를 확정하는 문제와 토론회에 참가할 대표단의 인원수를 얼마나 하며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겠는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있는 『서울토론회』때처럼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북과 남의 여성대표들이 서로 연락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3차 『평양토론회』가 아시아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염원하는 북과 남, 일본 여성들의 기대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최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1992년 6월 3일

아.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시 : 1992. 7. 23(목) 10:04~10:14
- 통화자 : (남) 이종성 (북) 이철영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귀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와 관련한 선생의
6월 3일자 전화통지문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측과 일본측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토론회 날짜를 9월초로 연기해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토론회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촉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992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우리측 대표 :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효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1992년 7월 23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 우 정

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실무접촉 일자 수정제
의 전통문

- 일 시 : 1992. 7. 28(화) 11:02~11:11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류금성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
위원회 여연구 상무위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부회장 이우정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2년 7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부회장 이우정 귀하

선생의 7월 23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와 관련
한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다른 북남대화 일정을 고려하여 7월
29일이 아니라 오는 8월 4일(화)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졌으면 합니다.

이날에 우리측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1992년 7월 28일

차.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실무접촉 일자
수정제의 동의 및 시간 수정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2. 7. 30(목) 15:04~15:10

○ 통화자 : (남) 이종성 (북) 박기훈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우리측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여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원회 상무위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연구 귀하

나는 선생의 7월 28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와 관련한 실무접촉 일자를 8월 4일(화)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접촉시간을 오후 2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1992년 7월 30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 우 정

카.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연구, 실무접촉시간 수정제의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2. 7. 31(금) 11:01~11:08

○ 통화자 : (남) 석명학 (북) 강영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귀하

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여연구 상무위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부회장 이우정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1992년 7월 3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부회장 이우정 귀하

선생의 7월 30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위하여 오는 8월 4일(화) 오후 2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여 연구

1992년 7월 31일

2.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

가. 일반사항

- 일시 : 1992. 8. 4 (화) 14:00~15:08
- 장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쌍방 대표단

우 리 측	북 측
<p style="text-align: center;">이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p>	<p style="text-align: center;">여연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겸 「여맹」상무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정명순 (「조평통」 서기국 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p>

나. 회의록

〈쌍방대표 입장 및 인사교환〉

남 :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셨죠? 김선옥씨는 못오셨네? 정말 반갑습니다.

북 : 어쨌든 더운 여름 한철에 서울 장안에 계셔도 더우신데 이 먼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더웠어요?

북 : 예. 같아요.

남 : 가물지는 않았어요?

북 : 일 없습니다.

남 : 혈압은 어떠세요?

북 : 일 없습니다.

남 : 다행이시네. 혈압이 있어서 우리는 염려했어요.

북 : 이렇게 늘 만나뵙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활기를 띠고 우리 회담이 잘될 것 같아요.

남 : 저 우리. 여기 이미경씨, 집행위원장했었죠? (우리측 배석자 소개)

북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 : 그동안 정말 일 많이 했어요. 그저 쉽없이 늘 다방면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

남 : 윤정옥 선생님이 많이 하시고.

북 : 이효재 선생이 금년에 유엔인권위원회에 가서 가지고 당당히 발언하시고.

남 : 8월 중순에 또 갑니다.

북 : 그렇습니까?

남 : 이북에도 조사 많이 하셨던데, 우리 남쪽 신문에 났어요. 조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강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 신문에 났어요.

북 : 종군위안부 문제로 중국 동부에 가서서 현지 확인하시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남 : 북쪽에도 보도되었어요?

북 : 그럼요. 이것이 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업이 확대되고 심도있게 간다는 거예요. 특히 남녘의 세 분의 여성 운동자, 지도자들이 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남 : 여기 남성 기자들이 많으신데 처음에 정신대 문제 꺼냈을 때 창피하다고 상대도 안하셨다고들 하더니 하도 우리가 끈질기게 하니까 이젠 기자들도 관심가지고 써주고 우리 정부에서도 실태조사서가 나왔잖아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북 : 성과가 큼니다.

남 : 그쪽에서 신고를 몇 분이나 했어요?

북 : 그저 열 명이 넘습니다. 자꾸 나옵니다.

남 : 근로정신대도 받죠?

북 : 근로정신대도 많지 뭐.

남 : 그런데 본시 북쪽에서는 종군위안부는 얼마 안 나왔어요. 남쪽에서, 전라남·북도에서 많이 갔지.

남 : 우리는 한 60명 신고 받았죠. 우리가 받은 것이 60여명, 정부, 유

가족회에서 받은 것을 합치면 한 100명 됩니다. 여러단체에서 받으니까...

북 : 성과가 아주 커요. 우리가 기뻐하고.

남 : 민주당의 위원장이시고 공동대표거든요. 이우재선생님이...

남 : 제가 어쨌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국회에서 또 문제시 해야죠. 당당하게 배상금도 받고 사죄도 받고 그래서 민족의 자존심을 좀 살려야죠.

북 : 그리고 여성들의 명예도 좀 지키고. 어쨌든 세 분의 활약이 상당히 큼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합니다.

남 : 우리 여성 문제는 남·북, 일본 할 것없이 아시아에서는 같이 해야죠.

북 : 세 분이 협력하시기 때문에 더 잘되고 또 옆에서 우리가 같이 해주니까 더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 : 8월 10일에 아시아에서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자들... 비올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다 옵니다.

북 : 일본 천황의 황군이 발을 들여놓은데는 다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만이라지만 3만이 될 수도 있는거고.

남 : 그렇죠. 회의할 때 북쪽 형제들을 생각할 거예요. 자매들...

북 : 그래서 사실은 다 사업하신 것을 듣고 싶지만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그 때 듣는 것으로 하고.

남 :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시작할까요?

북 : 모두 건강하십니까? 집행위원동무도 다 건강하고?

남 : 예. 그리고 저는 그 때 일본에서 뵈서 동생...

북 : 일없습니다. 간 사람은 가고, 배은망덕하죠. 통일이라는 이런 큰 대업을 놓고 먼저 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 : 한번 남한에 와 보시고 돌아가셔야 했었을텐데.

북 : 혼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남 :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북 : 사실은 나보다 10년정도 더 젊으니까 통일운동도 더 많이 해야겠는데 먼저 간 것은 패썹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겠지.

남 : 예. 이 박사님은 이번에 평양에 꼭 가셔야 되겠데요. 어떻게 올라대시는지 제가 못 견딜 지경이고. 양동생이랍니다, 여선생이, 내 양동생인데 난 가야 된다고,...

북 : 누가?

남 : 이태영박사님이, 자기가 양딸이었다면서요? (웃음)

북 : 그건 거기에서 다 관여해서 하십시오. (웃음) 그러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이 있고, 우리측이 주최측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북측 첫발언〉

리우정 선생과 리효재 선생 그리고 윤정옥 선생

나는 먼저 지난해 11월 제2차 서울토론회로부터 9개월만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여성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길에서 뜻을 같이한 남녘의 여성운동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데 대해서 마음

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우리 북측대표단의 서울 체류기간 우리 일행을 동포의 정으로 따듯이 맞이해 주시고 친절히 돌봐준 리우정 선생과 리효재 선생, 윤정옥 선생들과 모든 남측 준비성원들, 그리고 남녘의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서울에서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는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북과 남, 그리고 일본여성들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뜻깊은 회합이었습니다. 제2차 토론회는 외세에 의한 나라와 민족의 분열로 하여 초래된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며 여성들뿐만 아니라 북과 남의 온겨레에게 통일열기를 북돋아 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표단에 표시해준 남조선 여성들의 극진한 환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지금 47년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격폐되어 살고 있지만 핏줄을 나눈 하나의 겨레라는 사실을 뜨겁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룩하려는 드팀없는 의지에 있어서는 북의 여성이나 남의 여성이나 추호도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리우정 선생과 리효재 선생 그리고 윤정옥 선생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제2차 토론회 이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 1년동안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는 역사적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으며 그 이행이 일정
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북남사이의 역사적인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온 겨레를 환희와 격동으로 들끓게 했던 7·4 공동성명 발표와 맞먹는 것으로써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사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의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서 한걸음 전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북과 남, 해외 모든 조선동포들과 여성들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결연히 떨쳐 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나라의 분열로 하여 여러가지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 북과 남의 여성들이 주의, 주장에 구애되지 말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공동수행을 위한 길에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3차 토론회는 1,2차 토론회에 비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7천만 겨레 모두가 평양에서 진행하게 될 제3차 토론회에 그토록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미 일정에 올린 평양토론회를 더 뜻깊고 성대하게

성공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르고 있습니다. 북과 남의 여성 대표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제3차 평양토론회를 훌륭히 성사시킴으로써 온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여성들 앞에서 지니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3차 토론회 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동의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토론회 날짜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한 대로 9월 초로 하되 우리측에서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 :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똑같으시네요.

북 : 두번째는 토론회 의제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미 북과 남, 일본측 사이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그대로이죠?

북 : 예. 그것은 큰 주제이고, 첫째 의제는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둘째 의제는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 전후 보상문제, 셋째 의제는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입니다.

제3차 토론회 의제를 이상의 3가지 문제로 하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현 시기 새롭게 제기된 정세를 고려해서 이번 토론회 의제에 중군위안부 문제와 을사5조약 문제 등에 북과 남, 일본 여성들이 공동 대처할데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남 : 이것을 하나씩 토론을 하나요, 다 듣고 하나요?

북 : 다 듣고... 종군위안부 문제와 을사5조약 문제로 말하면 제2차 토론회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새로운 문제으로써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견지에서나 또 민족의 존엄을 호소하는 견지에서 볼 때 온 겨레와 특히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기초하여 토론회 명의로 3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토론회에 참가할 대표단 구성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3자 사이에 의견을 교환한 바 대로 대표단 인원수는 대표 5명과 취재기자 5명을 포함해서 30명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토론회의 기간, 참관 및 구체적 일정은 남측과 일본 여성대표들이 평양에 모여서 함께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섯번째로는 귀측 토론회 참가 명단과 신변안전담보각서는 토론회 개최 10일전에 교환하며 판문점 통과절차는 관례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3차 토론회 조직과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접촉이 성과적으로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할까요?

남 : 일자에 관해서는 일요일까지 하면 우리가 떠나는 날이 월요일이 됩니까? 왜냐하면 판문점이 일요일은 닫죠. 그래서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2일부터 7일로.

북 : 같은 것인데. 토론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남 : 우리는 상관은 없어요.

북 : 그러면 1일부터 6일까지, 일 없습니까?

남 : 예.

북 : 그러면 이것은 됐습니다.

남 : 판문점 통과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북 :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2일부터 7일까지.

북 : 7일부터는 우리가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남 : 1일부터 6일이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남 : 여기만 통과가 된다면...

남 : 통과 안되면 하루 더 자죠. 그러면 좋습니다. 첫째 것은 됐어요.

북 : 1일부터 6일까지로 하되, 판문점의 사정을 봐서 되면 되고 안되면 할 수 없죠.

남 : 저희는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의제가...

북 : 의제에서 우리가 보충했죠.

남 : 보충은 좋은데요, 일본에서 합의를 보기를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은 우리가 과거의 여러가지 일본의 침략에 대한 것을 규탄하고, 그 다음 2번에 일본의 전후보상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평화창조를 하자 그랬는데 이것을 각자가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가지를 포함해서 한 나라에서 한 사람씩 발제를 하자고 그랬죠.

북 : 그런데 우리측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폭넓게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측에서는 매 의제에서 하나씩 다 나와서 하자. 남측에서 3명, 일본측에서 3명, 우리측에서 3명 이렇게 토론해 버리자.

남 : 대규모가 되네. 그러면 9명이 되네.

북 : 한 의제에 대해서 일본측, 남측, 북측 3명이 기초보고를 하게 된다.

남 : 며칠이 안 남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되었죠. 한 나라에서 하나씩 해서 이 셋을 발제에다 포함을 시키자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9명씩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것 하다가 아무 것도 못하게 됩니다.

남 : 우리는 보고 싶은데도 많은데.

남 : 우리는 지금 여성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탁아소, 농촌의 시설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토론으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일본서는 합의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포함해서 3가지를 한 사람이 한 논문에 담아서 하기로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거의 다 썼거든요.

남 :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은 8월 10일서부터 아시아의 연대회의가 있어서 그 준비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남 :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의 여성이 다 와요.

북 : 몇개 나라가 옵니까?

남 : 대만,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그렇게 와요. 그래서

그준비로 인해서 이것을 쓸 사람도 없어요. 어떡하지?

남 : 각나라에서 한 분이 하고, 그리고 세 쪽에서 두사람씩 패널처럼 간단하게 보충발언을 한다든지.

남 : 그것을 우리가 안하기로 했는데요.

북 : 안하기로 했어요? 간단하게 한 5분씩...

남 : 또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맡기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뜯어 맡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맡겨서 쓰라고 할 시간이 없고, 제가 세가지를 포함해서 썼거든요.

북 : 그러니까 한 개의 의제에 한해서 한 나라에서 보충, 기조발언을 합해서 한 명이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 의제에 대해서?

남 : 일본서는 그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스미꼬랑, 여선생님 저랑 셋이서 합의할 때는 너무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해도 산만해지고 흩어지니까 집중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사람씩 나오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일본침략에 대한 것을 분명히 추궁하고 짚고, 그리고 현재 일본이 전후보상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추궁을 하자, 이것은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창조하려면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냐? 이 3가지를 한 나라에서 다 연구를 해서 한 논문으로 담아와서 발표하자. 그래서 과거를 분명하게 짚고 현재의 상황에 책임추궁을 하고 미래창조를 위해서 여성이 공헌하자.

그대신 그렇게 하고는 누가 나와서 보충하고 뭐하다 보면 산만해지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전체 토론을 하자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9명이 나와서 하면 나중에 혼돈이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북 : 어쨌든시간에 그것도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세를 놓고 볼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협력과 교류에 대한 합의서도 나오고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조금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 남측도 또 우리도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서로 이해할 점은 이해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다시 토론해 보고. 그래서 충분히 하느라고 했는데 만약 그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시아 무슨 회의입니까?

남 : 정식이름은 정신대 문제에 관한 아시아 여성연대회의예요.

북 : 몇일서부터 합니까?

남 : 8월 10일, 11일, 약 60명이 모입니다.

북 : 우리측에서도 전화통지문에서 의제문제가 기본적으로 낙착된 것으로 나갔고 우리쪽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준비가 그쪽에서는 한 문제로 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세 문제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남 : 저는 이미 셋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발제를 거의 준비를 다 했고...

북 : 그쪽에서 우리 전화통지문을 보는데 대해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 전화통지문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일본에서 우리 셋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지. 그

런데 9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너무...

북 : 숫자는 그런데, 의제는 세 개로 하는가, 하나로 하는가?

남 : 의제는 세 개로 하되 한 사람이 하는거지. 한 나라에서 하나씩 나와서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토론 이런거는? 첫날은 환영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이틀로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우리는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요청이에요.

탁아소 문제, 급식 문제 등 여러가지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북이 그런 것이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때 한 명숙위원이랑 모두 가면 제도, 시설을 보고 많이 배워오고 싶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북 : 전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도 들어보고 동시에 참관도 한다. 이걸 동시에 합하자는 거고, 물론 그때 그렇게 되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으로는 좀 많이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볼 것은 다 보자 그것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국제회의가 있는 만큼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데, 다시 토론할까?

남 : 다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맡겨서 이제 다시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쓰려면 그렇게 쉽게 써지지 않거든요.

북 : 우리도 그거 예상치 않았으니까, 이해됩니다.

남 : 모르셨죠?

북 : 몰랐지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남 : 여성들이 벌여놓은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은 다시 그렇게 해 주

시고요.

북 : 그러면 기조보고를 우리가 내놓은 것은 세 개 나라에서 하나씩 하고 보충토론은 두번씩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의견을 들어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평양에 오셔서 할 수도 있죠, 급하지 않죠?

남 :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주제발표 한 사람만 준비해 가면 되는데 셋이 갑자기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북 : 의장선생님이 가서 그렇게 토론하시고 온 다음에 여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이해하자면 일본 여성들, 남쪽 여성들, 우리 여성들 매측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않은가 해서 토론 수는 좀 조절해 보더라도 기조보고는 세 개의 의제로...

남 : 사전준비를 누구를 지정해서 하기 보다는 북쪽이나 일본이나 우리쪽 중에 한분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이나 자유 토론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시간을 정해서 몇 분이 질문을 한다거나 자기의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그거는 어렵지않게 가능하지요.

북 : 보충발언형식을 통해서.

남 : 그거야 우리가 원래 첫번째 생각하는 바니까.

남 : 그런데 처음서부터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북 : 아, 그래요?

남 : 나는 일본서 그렇게 합의를 봤길래 나는 그렇게만 준비를 했죠.

북 :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스미꼬」 선생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4. 15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남 : 언제?

북 : 스미꼬 선생님이 한번 여기에 왔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남 : 그런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발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넣어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논문이 조금 길어지겠죠. 그리고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일본이 하고 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북한이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갈래가 잡힌다. 여러사람이 해서 갈래가 여럿이면 토론도 제대로 안되고 집중적으로 되기가 어렵다.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서 준비를 했는데.

북 : 4월달에 다시 만나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전달된줄 알았는데. 다시 토론해야지...

남 : 우리 사정이, 이 양반들 준비 때문에 매일 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라 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미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지 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고, 어때요 선생님? (우리측대표를 향해)

북 : 자유토론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할까?

남 : 글썸, 조금더 생각해 보시지요?

북 : 의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처할데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남 : 종군위안부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논문 속에서 남한측은 평

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전후보상 혹은 배상을 안 했다 해서 오는 책임, 종군위안부 문제는 중요 논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을사5조약은 우리가 생각을 안해 봤어요.

북 : 우리는 이 의제에 대해서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걸 좀 자세하게.

남 : 이걸 이미 역사적인 자료로써 결국 이것이 위조라는 것은 판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학자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북 : 공동체에서 결의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초안을 내놓았죠. 물론 그것이 허위날조이고 사실 무효죠. 그런데 한일회담에서 그것이 취급되었죠? 65년도인가 6월달에...

남 : 취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 : 보상문제도 다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남 : 보상문제는 취급되었지요.

북 : 그것도 결국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 : 그렇죠. 포함이 되죠.

북 : 그래서 을사5조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나?

북 :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한일회담에서는 구 일본과 체결한 모든 조약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체결한 조약이 아니라, 맺은 조약이 아니라, 사실 맺지도 못한 조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는 한일조약에서는 이 자체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맺지 않은 조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계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때
우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 남, 일본여성들이 모였
을 때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으면 사실상...

남 : 그러니까 이 을사5조약 문제도 과거에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악
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정말 고종황제가 수결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짜로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지만 조약 자체가 무효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토론하는데 3자 공동결의문을 일본에서 할 적에
그 때 기억을 하시지만 하려고 그러니까 언어문제도 있고 무엇도 있
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은 일본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가서 우리대로 하자.

북 : 그래도 1차때 좋은 호소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남 : 그것은 일본이 일본여성에게 하는 호소문이라고 성격규정을 하고 했
거든요. 그래서 서울서도 공동결의문이나 성명서는 안했습니다. 왜
냐하면 여기서 들어가셨죠, 제가 대표로 안들어가고? 언어문제랑 여
러가지가 있어서 3자 공동결의문이나 호소문을 하지 말고 그 때는
일본여성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라고 합의를 보고 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와서 우리가 우리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하는 것으로 그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제안
인데.

북 : 어쨌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남 : 일본하고 합의보기가 쉽지 않을걸요.

남 : 이걸요? 어쨌든 3자가 모여서 합의를 보고 결정하는 만큼...

북 : 평양에서 3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려면...

남 : 왜냐하면 내용에 따라서 일본이 합의할 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내용에 따라 다른데 그 때 일본에서 할 때는 정명순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이호재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밤새 얘기하다가 일본에서 이것은 우리가 일본여성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다 해서 그것으로 해결을 지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남 : 3자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 : 우리가 제안을 한번 했으니까 그것을 리해해 주시고...

남 : 이것은 우리 둘이 합의불 문제가 아니고...

북 :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보고는 좀 바쁘시더라도 좀 어떻게 하나씩 들 해주셨으면 해. 그래야지 참 좋다고.

북 : 기초보고는 우리 안대로 하면 매측에서 한 문제가지고 세 명이 기초 보고를 하겠죠.

남 : 여기 안대로 하면.

북 : 우리 안대로 하면 차라리 보충토론은 좀 제한하더라도 기초보고를, 기초보고를 준비하자면 폭넓게 자료를 조사하고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보충토론은 좀 제한하더라도 기초보고를 충분히 토론하고 그것을 보충했으면 싶습니다.

남 : 그러면 이 문제는 하여간 우리 정신대 대책위원회와 집행위원회와 한번 다시 의논하고, 그쪽에서도 좀 해봐 주시죠. 둘로 줄인다든지.

남 : 일본쪽에도 이것을 충분히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쪽에서 지난번에 같이 결정하신 것하고는 또 다르니까.

북 : 그런데 시간은 길게 하지 말고.

남 : 이효재 선생님은 연대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네바에, 유엔에 가서야 됩니다.

북 : 다른 분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북 : 윤정옥 선생님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이 이번 기회에 토론하지 않으시면 또 언제 토론하시겠어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잘해 보십시오.

북 : 여러분들이 기조보고를 딱 하셔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 토론회처럼...

남 : 우리는 9명이 한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본셋, 우리셋, 거기 셋하면 9명이죠, 너무 많죠?

남 : 이제부터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남 : 그쪽의 제안이 그런 만큼 결국 여기에다가 일본이나 북쪽이나 남쪽에서 1명에서 3명까지 세 주제를 각각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3명이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3명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우리가 세 분이 하든가 한 분이 하든가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 : 그런데 그쪽에서 한 명이 하면 토론회 운영하는 우리로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남 : 그러니까 하나가 하든 셋이 하든 이 제목 셋은 다 다룬다 이것은 합의되었죠? 이 제목 셋은 하나가 하든 셋이 하든,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 하든 한 사람이 셋을 다 맡아 하든 제목 셋은 다 다룬다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고요.

북 : 그렇죠.

남 :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따로따로 해라, 우리는 일본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하나가 한 논문안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정 그러시면 우리 의견도 참작해서 다시 의논해 주시고, 우리도 여기 안을 가지고 가서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대신 혼자서 하면 토론진행이 어렵다고요?

북 : 아니 일없습니다. 세 문제가 다 언급이 되면...

남 : 아니 세 문제는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합의를 봤어요.

남 : 내용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남 : 그것은 상관없죠?

북 : 예.

남 :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죠.

북 : 그렇게 되면 토론시간은, 한 문제의 기초보고는 그저 한 20분정도면 되겠죠?

남 : 그러니까 이 셋을 다 한 논문에서 다루면 길어지죠. 적어도 40분은 주셔야죠.

북 : 기초보고를 하는데 매 문제에 대해서 길게 준비할 것 없고 한 20분 동안 하게 되면, 매 문제에 한 명씩...

북 : 매 문제에 20분씩입니다.

남 : 1, 2, 3을 따로따로 20분씩.

북 :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부담을 들어서 길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해서 길게 한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나 한 사람이 20분씩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남 : 그건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남 : 아 물론 이 세 가지를 한 시간을 단위로 잡으면 되겠네. 세 분이 하는 경우 20분, 한 분이 하는 경우 60분, 이것은 조금 형식상 문제입니다.

남 : 아 물론 이 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하나씩 하느냐, 혼자 셋을 다 다루느냐 하는 것은 조금...

북 : 그러면 종군위안부 문제와 을사5조약 문제는 그 의제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의제를 따로 내오는 것입니까?

남 :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본의 과거 침략이라든지 이런 죄상을 말하려면 거기에서 종군위안부, 을사조약 문제를 말 안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도 안지고 사죄도 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으면 토론에서 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겠죠.

남 :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윤정옥 선생님이 설명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측에서 이미 그동안의 사례를 조사

하신 것을 발표해 주시면 좋고요.

남 : 우리가 8월 10일에 하니까 각 국에서 다른 아시아 여성들이 당한 것까지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하느냐, 셋이 하느냐, 하나가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다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죠.

북 :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충토론은 어떻게 할까? 한 명씩...

남 : 일본서는 없애자 그랬었죠. 직접 청중과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북 : 청중한테서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글썄 그것도 좋겠는데 산만성을 피하고.

남 :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는 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 다루면 사흘, 보충질문, 토론을 해서 사흘이 가고 나면 우리는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북 : 이우정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보고를 만약 매 측에서 3명씩 하신다면...

남 : 우리는 탁아소, 밥공장, 산원 그리고 금강산 좀 보려고 하는데.

북 : 어쨌든 오셔서 토론해 봅시다.

남 : 이것은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에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여성단체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훨씬 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

백두산도 가고 싶고, 묘향산도 보고 싶고 해서 이것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랬었거든요.

남 : 칠보산 참 아름답더군요? 남북의 창에 나오는데 칠보산은 너무 너무 아름답더군요.

북 : 토론회하는 그 시기는 참 아름다운데.

남 : 그럼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단 구성은, 그 때 일본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 :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정식으로 우리측에서 초청합니다.

남 :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명만 초대했기 때문에 너무 30명씩 간다는 것이 면목이 없지만...

북 : 시절이 발전하고 그만큼 확대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남 : 다음에 초청할 때 많이 초청할게요.

북 : 그 다음에 남측 집행위원회가 굉장히 수고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남 : 그 집행위원 6명하고 우리 대표 3명은 꼭 가야겠거든요.

북 : 한 명도 안오시면 안됩니다.

남 : 그런데 숫자를 넣어놓으면 그 밖에는 이태영선생님 등 아무도 못옵니다. 기자 5명에 우리 9명인데, 15명이면 다른 사람이 한 명도 못가거든요.

북 : 열 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 :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 주셨으니까 각계각층을 다 망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 : 각계각층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대표를 다 망라시키세요.

남 : 모두 가고 싶은 분을 다 포함하면 100명도 모자라겠지만 일단 3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북 : 우리 동경때는 3명이었는데 동경에 비해서는 열배 늘어났고 서울에 비해서는 배가 늘어났어요.

남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인데.

북 : 토론회 기간, 참관 및 구체적인 일정은, 이것은 남측과 일본여성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하자.

남 : 그 때 하죠. 그 다음에 명단, 신변안전보장각서 이거는 실무진에서 할거고...

북 : 그 다음에 명단, 신변안전각서 명단은 개최 10일전이니까 8월 20일까지는 주십시오.

남 : 그러죠. 우리가 실무진에 부탁하죠.

북 : 이상으로 우리가 합의할 것은 다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정명순 동무가 발표해 주시죠.

북 : 제가 양측을 대표해서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날짜문제입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 인원수 문제는 각기 30명으로 하되 그 구성은 대표 5명, 기자 5명, 기타 20명, 기타인원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되겠죠. 대표단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이우정 선생님, 이효재 선생님, 윤정옥 선생님과 제2차 서울토론회 때 남측의 집행위원을 하셨던 6명의 집행위원회 선생님들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이 이에 대해서 동의했다

는 것도 합의된 것입니다. 꼭 고려하신다는 것을...

남 : 우리 집행위원들이 참 좋아 하겠어요. 참 고생했거든요.

북 : 그 다음에 토론회의 의제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측은 3가지 민족대 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 전후보상 문제, 평화 창조와 여성의 역할 등 세 가지로 의제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 되,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조선침략문제 안에서 을사5조약 문제와 중 군위안부 문제를 내용적으로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기초보고를 각기 매 측에서 이 세 문제를 다 취급한다는 문제가 우리측에서 제기되었고, 그쪽측에서는 이 문제 는 내용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세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돌아가서 토론해 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남 : 한 사람이 해도 세 가지 조항을 다 다루기는 한다?

남 : 거기에 정신대, 을사5조약은 꼭 포함시킨다?

북 : 그 다음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문제, 을사5조약과 정신대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동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문 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없지 않았는 가 하는 생각인데...

남 : 이것은 아무래도 일본이 참여한 자리에서 3자가 함께 결정한다.

북 : 그럼 이 문제는 평양에 온 다음에 3자가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남 : 예.

북 :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문제는 남측과 일본측이 평양에 도착한 다

음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금강산을 방문할데 대한 참관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토론한다는데 대해서...

남 : 금강산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가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남 : 지금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특별히 탁아제도, 급식제도, 산원등을 보고 싶어하고 전체가 원하는 것은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 :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표단 명단과 신변안전담보각서는 토론회 개최 열흘전에는 우리측에게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 : 합의가 되었어요.

북 : 그리고 그밖에 판문점 통과절차는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이상 이런 내용들이 합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 : 평양에서 뵈게 됐네요.

북 : 나머지는 걸리는 것이 없어요.

북 : 우리가 그전에는 40여년 동안 사실 분계선에 씨앗이 떨어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해방동이가 자라서 중년이 될 때까지 만나기는 고사하고 편지 하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내왕하면서 폭넓게 되고, 서로 벌써 세번째 만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남 : 그럼요.

남 : 여명구 선생님이 문안 전해 달라고...

북 : 감사합니다. 어차피 통일의 한길에서 만났으니까 끝까지 통일의 한 배를 탄만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남 :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의 여성이 다 힘을 합쳐야 정 신대 문제같이 여성들이 기가막히게 당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을 극복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미즈 스미꼬」가 금요일인가 저한테 전화해서 평양에서 끝나면 일단 한 라운드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평양에서 끝나고 의논하자.

그런데 다음 2회 일본에서 시작할 때는 명실 그대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대로 넓혀서 대만,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여성들이 너무 벽차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남하고 북만 하는, 우리는 남하고 북만 하는 것은 좋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까 시미즈가 우리도 같이 해야지 왜 너희만 하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에서 끝나면 그 문제가 또 의논될 것입니다. 이제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럼 두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미즈 스미꼬」가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오늘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나고 저녁에 전화해 주마 했습니다.

북 : 그럼 이 결과를 전해 주십시오.

남 : 예. 제가 전화를 하죠.

북 : 어쨌든 우리 사업이 즐기치게 성과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남 : 정말 만날때마다 문제가 잘 풀려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것인데...

남 : 여기서 넘어가는 시간은 10시로 하나요? 그 때 10시에 넘어오셨으

니까 관례대로 하죠?

북 : 예.

남 : 그리고 9월 6일 우리가 오는 시간은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남(연락관) : 아까 얘기로는 일요일날은 여기 사람이 없어서...

남 : 일요일날 하게 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오시겠다면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죠.

남 : 오셔야지. 좀 불편하더라도 해 주셔야지. 이쪽이 사정이 있다니까.

북 : 우리 일정도 있고 막 복잡해요. 태권도 문제도 있어요.

남 : 그러면 넘어오는 시간은 평양에서 여기까지 와서 넘어오려면 상당히
늦어야 여기를 넘어오겠네요. 그러면 한 5시? 일찍 떠나면 여기 몇
시에 도착합니까?

북 : 오전 10시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 : 아침 10시전에 여기에 도착해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오는
시간은 몇시로 해야, 여기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일요일이니까 시간
여유가 필요하시니까 오후4시쯤 도착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성에서 하룻밤 자고 싶어. 개성에서 일요일 밤 자고 월요일 아
침에 넘어오면 될텐데.

남 : 왜냐하면 일요일이라서 쉬셔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때문에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평양보다야 가깝지만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면 멀거
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도착하도록 해 주시면 관계자들이 오전
에 쉬시고 우리가 넘어오도록 하면 되겠죠.

북 : 4시 괜찮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남 : 아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최자측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평

양에 가서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4시 너무 늦지 않아요? 일요일이 아니면 좋은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4시, 여기서 판문점 넘어갈 때는 10시, 그러니까 일단 판문점을 넘어가면 그쪽에서 2시에 도착하게 하시든지 4시에 도착하게 하시든지 우리야 손님이니까 주인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북 : 그런데 요전번에 남조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조선학생위원회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대처하자는 편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 : 이것이 오미자입니까? 색깔이 이쁘네요.

남 : 이것이 그렇게 몸에 좋네요.

북 : 오미자 많이 드세요.

북 : 그래서 그것을 들으셨는지? 남조선 전국여자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대학생 학생위원회에 편지가 왔어요.

남 : 아침에 저한테 여자대학생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종군위안부 문제를 앞으로 여대생끼리 과제로 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신이 오고 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선생님한테(이우정대표에게) 오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그러면, 알겠다. 아마 북쪽에 가든지 북쪽 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겠지. 자기들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같이 공동으로 가진다 하는 통신이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북 : 좋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 이미 그쪽으로 통신이 갔어요?

북 : 조선대학생 위원회에 왔어요.

남 : 여대생들이 그쪽 조선여대학생들한테?

남 : 우리하고 관계가 안되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교환하자, 꽃꽂이 하는 사람은 이복에 꽃꽂이 하는 분들하고 교환하도록 만나거든 나를 보고 교섭해 달라고 하는 등 수십건이예요. 의복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놔 달라고 하고, 하도 많아서 오늘은 우리 관계만 하려고 해서 그러죠, 많아요.

북 :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다 됩니다.

남 : 그래요. 그런데 남북회담이 우리처럼 하면 통일이 빨리 되겠어요.

북 : 글썄요. 우리가 9월초에 첫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통일의 한 문짝의 고리를 잡아 당기는데 끝까지 잡아 당기고 먼저 들어가고.

남 : 여자가 인구의 반이니까 우리가 반쯤 엮시다.

북 : 먼저 들어가서 안되면 반쪽도 떼어내 메고서 열도록 해야죠.

남 : 그래요. 우리가 통일의 문을 반쯤 엮시다.

북 : 고맙습니다.

남 :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가서 볼 것 실컷 보고 오겠습니다.

북 : 모두 건강하세요.

남 : 특별히 몸조심하세요.

남 : 정말, 혈압 어때요?

북 : 일없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활달하시고 부지런하시고

...

남 : 우리는 정신없이 바빠요.

북 : 모두 기뻐하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이 토론
도 잘해주시고...

남 : 이번에 가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보고 그러고 올랍니다.

북 : 기대가 크지요. 여성대중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합시다.

남 : 잘해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너무 반가워요.

<쌍방 대표 인사교환후 퇴장>

다. 남측 대표단 기자회견

이우정 : 날짜는 9월 1일에서 6일로 하고 일요일날 여기 판문점을 넘어 와야죠. 관계자들이 일요일날 출근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의제는 큰 타이틀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1회서부터 하던 것을 그대로 하기로 하고, 북쪽에서 제안한 것은 의제도 세 사람이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침략과 지배, 전후보상 문제, 그 다음 세번째로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일본측과 3자가 합의를 보기는 제목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로 하고 그 내용을 다루는데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죄악상, 정신대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루고, 두번째 현재 일본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안하고 보상도 안했으니까 전후보상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세번째로 어떻게 바람직한 세계를 창조해야 하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에서 미래의 평화로운 아시아를 창조하는 여성의 역할로해서 내용에서 단계적으로 다루되 한 사람이 하자, 한 논문에서 이것을 다 다루자고 합의를 보았는데, 가지고 나오기는 셋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게 좀 하자고 해서 셋으로 나누어서 20분씩 해서 60분씩 하든지 아니면 한 논문에서 담아서 한 사람이 60분을 하든지 아니면 두사람이 나누어서 둘이 하든지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자 아뭏든 내용만 다루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와 을사5조약을 가지고 일본, 남한, 북한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일본에서 제1회 할 적에 내용을 담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쓰는 어휘도 그렇고, 우리가 찬성하면 북한이 찬성을 못하고 또 일본이 뭐라고 그래서 3자 결의문, 성명문은 내지 말자, 각자 자기 나라 여성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호소문은 각자가 내는 것으로 하고 3자가 하는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여성에 호소문을 내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자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을사5조약 문제에 대해서 공동결의문을 내자고 해서 전례가 그래서, 서울 토론회 때도 공동성명문, 결의문을 안 했어요. 이것은 일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결의로는 안된다. 3자공동은 우리가 못하고 전례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 갔습니다.

대표단 구성은 기자 5명, 대표 5명, 기타 20명해서 3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짰는데, 우리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직업여성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아요?

탁아소, 급식, 산원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금강산도 구경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강산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가자 명단, 신변안전보장각서는 개최 10일전에 자기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통과절차는 전례에 따라서 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기 자 : 숙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우정 : 숙소문제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기 자 : 토론장같은 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이우정 : 그렇죠. 장소 그런것은...

기 자 : 추후에 다시 만날 일정은?

이우정 : 이제는 없죠. 10일전에 명단을 넘겨주고 1일날 우리가 10시에 넘어가기로 했고, 오는 것은 6일날 오후 4시에 판문점 넘어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기 자 : 대표단 구성에서 일본측도 마찬가지로입니까?

이우정 : 일본측에서 15명이면 자기네가 곤란하다. 거기는 조총련과 민단을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여성대표, 조총련여성대표, 민단여성대표니까 15명은 너무 적으니까 30명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은 늘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줘 가지고 가지고 왔네요.

기 자 : 우리측 대표단 5명은 오늘 3명과 2명이 더 포함되겠죠?

이우정 : 그렇죠 집행위원은 북측에서 다 초청했어요. 우리 세명과 집행위원 6명은 자기네가 지명해서 초청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기 자 : 의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측과는 각각 따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완전히 합의된 것입니까?

이우정 :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 자 : 의제는 아까 불러주신 세 가지와 형식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이우정 : 예.

기 자 : 그쪽으로 넘어가면 형식도 9월 1일이면 정해지겠습니까.

이우정 : 그렇죠 별 말싸움이 없었어요.

기 자 : 처음부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우정 : 서로 양보하고 그게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의견대립도 없었고 말싸움도 없었고 좋게 좋게 했어요.

기 자 : 여연구 대표는 지난번에 고혈압이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우정 :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졌던데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된대 대해서 조의를 표했더니 통일도 해야 하고 할일도 많은데 먼저 가서 불충하다고 했어요.

기 자 : 이제는 1일날 넘어가시는 것 외에는 전통문이라든지 하는 이런 연락도 사실상 없는 것이네요?

이우정 : 없죠.

기 자 : 참가자 명단과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은 7일전이라고 했습니까?

이우정 : 10일전입니다. 그것은 통일원의 연락관을 통해 가지고...

기 자 :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우정 : 고생 하나도 안했어요.

기 자 : 남산 회담대표들 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우정 : 그래요. 서로 이해를 하니까.

기 자 : 북측 기자들이 홍과장을 참 궁금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남성 수원이 왔느냐고.

이우정 : 이번에 평양가는데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홍과장이 한번

도 평양을 못갔으니...

기 자 : 반드시 기사를 한줄 써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우정 :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평양 여성세미나」관련
남북여성대표 판문점 실무접촉 자료집

인 쇄 : 1994년 11월 일

발 행 : 1994년 11월 일

발 행 처 : 남북회담사무국 운영2부
사회문화회담과
(Tel : 730-3655)

인 쇄 처 : 대경인쇄
(Tel : 278-2955)

〈참고〉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 (제1~4차) 개요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기 간	'91.5.31~6.2(3일)	'91.11.25~29(5일)	'92.9.1~6(6일)	'93.4.22~29(8일)
장 소	일본 동경·고베	서울(라마다올림픽아호텔)	평양(인민문화궁전)	일본(동경, 오사카)
주 최	일본부인회의(의장:시미즈 스미꼬)등 4개 일본여성단체	서울여성세미나준비위원회(공동대표: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평양여성세미나준비위원회(대표:여연구)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여성세미나 실행위원회
참 가 자 규 모	○ 남·북 및 일본 500여명	○ 남·북 및 일본 300여명	○ 남·북 및 일본 250여명	○ 남·북 및 일본 1,000여명
발 표 자 주 제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효재(한국여련회장)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의 역할” -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회장) “식민지시대의 조선여성의 피해” <p><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본의 여성과 남의 여성에 호소한다”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미즈 스미꼬(참의원의원):무제강연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이대교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p><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명순(조평통서기국참사) “통일과 여성”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미즈 스미꼬(참의원의원): “평화와 여성”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우정(전 KNCC부회장)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p><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금순(사회과학원실장)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미즈 스미꼬(참의원의원): “일본의 조선침략과 지배·전후 보상문제”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우정(국회의원) “참된 화해를 찾아서” -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강제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 -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장) “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p><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금춘(김일성종합대학강좌장)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 및 전후보상문제에 대하여” - 홍선옥(군축문제 평화연구소 실장) “아시아의 평화와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여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미즈 스미꼬(참의원의원): “일본의 식민지배·전쟁책임과 전후보상”
특 기 사 항	○ 호소문 채택 - 중군위안부 보상,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조·일국교 정상화등을 촉구	○ 북측 참가자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조기귀환	○ 김일성 면담 및 오찬 ○ 북측은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 구성체의로 『범민련』, 『범청학련』 등과 같은 통일전선체 조직을 여성계로 확대코자 기도	○ 관방장관 면담 ○ 여성국회의원과 간담회 ○ 북측:유인물배포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93.4.6)
성 격	<p>○ 일본측의 시미즈 스미꼬(사회당의원), 북한측의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우리측의 여성계 인사(이효재 한국여련회장)등이 참가하는 진보적 성격의 국제여성세미나임.</p> <p>○ 북한측은 그들의 정치선전적 목적을 위해 동세미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p> <p>- 제4차 동경세미나시 김일성 10대강령('93. 4. 6)등 선전</p>			

